

입법평가 연구 11-17-⑩

# 입법평가에 있어 주관적 인식의 측정방법론 적용에 관한 연구

윤 광 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입법평가 연구 11-17-⑩

# 입법평가에 있어 주관적 인식의 측정방법론 적용에 관한 연구

윤 광 진

**입법평가에 있어 주관적 인식의  
측정방법론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Q-Methodology  
for Legislative Evaluation

연구자 : 윤광진(부연구위원)  
Yoon, Kwang-Jin

2011. 10. 31.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는 입법의 과학화 내지 객관화라는 흐름속에 방법론적 다양성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입법평가에서 진행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평가방법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CBA와 CVM은 사회적 공평성, 인간의 엄성 등 가치에 대한 논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AHP은 연구자간 주관적 인식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식의 차이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연구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며 특히 환경가치 등에 대한 문제인식은 이해관계집단간의 다양한 시각차이로 나타난다. 입법평가는 법제의 특성상 개념정립과 체계정합성 등 규범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수범자들간의 가치, 선호 등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고 공통된 의견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해석학적 논의가 중요한 분야이다.
-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Q방법론(Q Methodology)이 대표적이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연구를 위해 개발된 연구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유형화하는데 적합하여 개인마다 서로 다른 주관성 구조에

따른 유형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특히 실증적으로 지지된 이론적 근거가 없거나 개념적으로 개발 중인 현상을 탐색하는 가설발견적 연구에 적절하다. 1953년에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인간의 주관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창한 후 언론학, 심리학, 정치학, 광고마케팅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 Q방법론은 기존의 통계학 중심의 R방법론(R Methodology)이 객관적인 변수들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Q방법론의 용어는 R방법론(Pearson Correlation의 상관계수 “r”에서 유래함)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통칭하여 불리고 있다. 최근 사회갈등의 양상을 보면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함께 이해관계집단들간의 가치체계나 이념의 다양성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 이해관계집단들간의 인식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통가치에 대한 담론을 규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기본개념과 분석논리를 정리하고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언론 등 사회과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Q방법론의 적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입법평가에서 가치유형 즉, 규범분석에서 지향하는 가치 내지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고 유형화에 대한 측정기준 및 결과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제분야에서 Q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법학분야에서 중시되고 있는 해석학적 방

법론을 보완함으로써 규범분석의 과학화 내지 객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주요 내용

-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유형간 차이점과 공통점이 발견되면 특정 주제 내지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소통체계를 확보하고 공동체로서의 자기성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정 주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진술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형간 차이가 명료하지 않고, 또한 동일한 유형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구조화 Q표본에 기인하기도 한다. 즉, 비구조화 Q표본은 특별한 연구설계가 없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 내지 문제 및 개념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다양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진술문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객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의 결과로 밝혀진 유형들을 새롭게 R방법론을 적용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두 방법론의

결과를 비교한다든가 또는 직업, 학력, 경제력, 건강수준 등의 항목을 다양화시키고 또 다른 통계기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표준화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으로 연계함으로써 Q방법론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또한 상이한 역할과 지위에 있다면 개인들의 주관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가장 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추출방법과 규모와 관련이 있다. 즉, 무작위추출에 의하지 않고 적은 수의 연구대상자를 토대로 산출된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이다. Q방법론을 “가설발견의 논리”라고 명명하는 것도 Q방법론의 이러한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표본을 확대하거나 무작위추출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 III. 기대효과

-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충족요건으로 하나는 연구대상자의 대표성 즉, 표본의 대표성이며 다른 하나는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 규모에서 연구대상을 인위적으로 배분하고 선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R방법론은 가능한 많은 수의 표

본을 무작위(random)로 추출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Q방법론의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P표본의 수를 확대하고 또한 강제배분을 통한 연구대상의 선정방식에서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반영 내지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 Q방법론은 하나의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통해 요인들간에 서로 다른 유형을 추출하게 된다. 요인추출방식에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리맥스(Varimax), 쿼타맥스(Quartmax), 이퀴맥스(Equimax) 등이 있으며, 주관적인 방법으로 센트로이드(Centroid) 방식이 있다. 주관적이고 판단적인 센트로이드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의 적은 수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아아젠값(Eigen value)이 1.0 미만이라도 의미있는 요인으로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간의 주관성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관성은 일정한 구조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Q방법론 연구는 중요하다. 특히 개념정립 및 체계정합성 등 법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가 전제되는 법제분야에서 수범자들의 주관적인 인식 유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Q방법론의 효용은 크다고 하겠다. 즉, 수범자 집단별로 나타나는 가치, 감정, 선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론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발견된 수범자 집단별



인식 유형이 입법목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입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입증하는 것은 중요하다.

▶ 주제어 : 주관성, 진술문, P표본, Q분류, 요인분석

---

---

## Abstract

---

---

###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 logic and proces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analytic process, the composition of Q-statements, the selection of P-sample, Q-sorting etc., and theoretical issues of Q methodology. Since 1953 William Stephenson when Q methodology was initially introduced, it has continued to develop on the basis of a quantum theory in physics and the discourse theory in communication.
- Despite of severe criticisms against Q methodology it has obtained its own sphere and has been used in many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like public opinion and attitudes, groups, roles, culture, decision making, personality, propaganda, values, communication, literature and other self-involving domains. This study lays foundation for future work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to Q methodology.

### **II . Main Contents**

-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dealing with the major principle of Q methodology and their applications to a

variety of subject matters, and the second devoted to technical issues of a statistical method. In particular,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process of Q methodology in relation to legislative evaluation application.

- At this present many questions are raised from quantitative methodological and qualitative methodological perspectives. It seems persuasive that Q methodology functions as a bridge connecting quantitative method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In that case, the result of the applied Q methodology utilizes statistical analysis applied to the questionnaire.
- Proceeding from what has been said above, it should be concluded that P-sample is increased and random sampling method is reflected. And also research theme or concept should be a precondition to sufficient data collection and a variety of discussions in order to clarity of the research results.

### **III. Expected Effects**

- As methodologies have their own limits, Q methodology has its own restraints to be used under the certain conditions. Q methodology, however, may be a powerful tool in certain cases where the research intends to measure human subjectivit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a draft for legislative fields

and legislative evaluation directivity by how do I take advantage of the subjective recognition.

► Key Words : Subjectivity, Statements, P-sample, Q-sorting, Factor Analysis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5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6
제 2 장 Q방법론 논리 및 선행연구 검토 .....	19
제 1 절 Q방법론의 논리 .....	19
1. Q방법론의 개념 .....	19
2. Q방법론의 특성 .....	21
3. Q방법론의 분석절차 .....	23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	27
1. 환경보존 담론 .....	29
2. 문화도시 형성 .....	35
3.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40
4. 노후인식 .....	45
5. 전자정부 .....	49
6. 내부고발 인식 .....	55
제 3 절 시사점 및 한계 .....	61

제 3 장 입법평가에의 적용가능성 .....	63
제 1 절 Q방법론의 연구설계 개요 .....	63
제 2 절 분석결과의 해석(예시1) .....	66
제 3 절 분석결과의 해석(예시2) .....	70
제 4 장 결 론 .....	77
제 1 절 요약 .....	77
제 2 절 입법평가의 Q방법론 활용 .....	78
1. Q방법론의 연구결과 일반화 .....	78
2. Q방법론의 적용범위 확대 .....	79
참 고 문 헌 .....	81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입법평가는 입법의 과학화 내지 객관화라는 흐름속에 방법론적 다양성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입법평가에서 진행된 방법론을 살펴보면 첫째, 비용편익분석(CBA)을 적용한 연구로 2010년에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에서는 환경, 인간의 존엄 등과 같은 비시장재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회적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한 연구로 2009년에 “환경가치추정기법의 입법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는 측정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독성 화학물질의 위험 등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한 입법평가연구는 없으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평가요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비계량지표는 평가요소에 대해 선입견 등이 작용하여 자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평가방법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CBA와 CVM은 사회적 공평성, 인간의 존엄성 등 가치에 대한 논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AHP은 연구자간 주관적 인식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식의 차이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연구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며 특히 환경가치 등에 대한 문제인식은 이해관계집단간의 다양한 시각차이로 나타난다. 입법평가는 법제의 특성상 개념정립과 체계정합성 등 규범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수범자들간의 가치, 선호 등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고 공통된

의견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해석학적 논의가 중요한 분야이다.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Q방법론(Q Methodology)이 대표적이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해 개발된 연구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Brown, 1980; Stephenson, 1980). 개인의 주관적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유형화하는데 적합하여 개인마다 서로 다른 주관성 구조에 따른 유형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특히 실증적으로 지지된 이론적 근거가 없거나 개념적으로 개발 중인 현상을 탐색하는 가설발견적 연구에 적절하다(김홍규, 2008). 1953년에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인간의 주관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창한 후 언론학, 심리학, 정치학, 광고마케팅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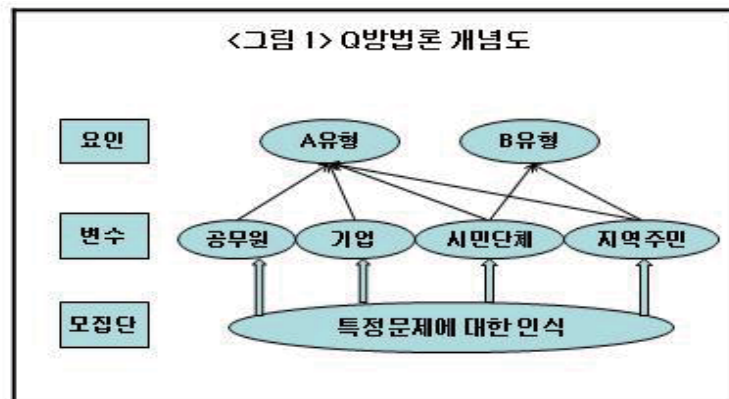
Q방법론은 기존의 통계학 중심의 R방법론(R Methodology)이 객관적인 변수들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Q방법론의 용어는 R방법론(Pearson Correlation의 상관계수 “r”에서 유래함)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통칭하여 불리고 있다. 최근 사회갈등의 양상을 보면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함께 이해관계집단들간의 가치체계나 이념의 다양성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 이해관계집단들간의 인식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통가치에 대한 담론을 규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기본개념과 분석논리를 정리하고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언론 등 사회과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Q방법론의 적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입법평가에서 가치유형 즉, 규범분석에서 지향하는 가치 내지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고 유형화에 대한 측정기준 및 결과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제분



야에서 Q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법학분야에서 중시되고 있는 해석학적 방법론을 보완함으로써 규범분석의 과학화 내지 객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Q방법론의 기본개념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하면 특정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모집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예를 들면 정부, 기업, 주민 등과 같은 이해관계집단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들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Q방법론의 개념도를 구성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은 Q방법론의 논리로서 Q방법론의 기본개념과 특성, 연구설계 및 분석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체계화하고, Q방법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평가에의 적용을 위한 Q방법론의 시사점 및 한계를 도출하였다. 제3장은 입법평가에의 적용을 위한 Q방법론의 연구설계 개요를 기술하였고, Q방법론을 적용한 분석절차 및 해석에 대한 예시를 통해 Q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제4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Q방법론의 논리와 선행연구의 검토 그리고 Q방법론의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예시를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입법평가에 있어 Q방법론의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 2 장 Q방법론 논리 및 선행연구 검토

### 제 1 절 Q방법론의 논리

#### 1. Q방법론의 개념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 내지 의식 즉,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에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로서 개인들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분석방법이다(Stephenson, 1980). 따라서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고찰하고 그 차이를 유형화하는데 적합하고 개인들간 서로 다른 주관성에 따른 특성이 명료해진다. 특히 실증적으로 지지된 이론적 근거가 없거나 개념적으로 개발 중인 현상을 탐색하는 가설발견적 연구에 적절하다. 따라서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에 대한 연구이므로 자아(self)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가치, 신념, 성격, 태도, 문화 등 자아가 포함된 모든 영역의 연구에 유용하다(김홍규, 2008).

Q방법론은 인간행태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중요하며 특히, 자아심리학이 인간 본성에 관한 과학철학적 가정과 가설생성의 과학적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가치나 태도, 신념 등과 같은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창출하는 독특한 방법이다(McKeiwn & Thomas, 1988; 김홍규, 2008). 즉, 자연주의에 근거한 실증주의적 연구는 객관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보이는 세계를 계량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반자연주의 혹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해석학, 현상학, 비판이론 등은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세계를 질적으로 이해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홍규, 2008). 그러나 후기구조주의자 푸코(Foucault)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대립적 방법론의 전통을 서로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것

은 베버(Max Weber)가 주관과 객관 사이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념형(ideal typology)을 제시했던 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스티븐슨은 Q방법론을 통해 이를 완성시키고자 하였다(한상진, 1991). 또한 Q방법론은 경험주의 방법론이 갖는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이해의 방법으로써 해석학에서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감정이입 그리고 현상학에서의 초월한 환원의 방법 등은 객관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주관적인 해석에 머물 수 있다는 문제점을 Q방법론은 Q모집단 이론과 요인분석 등을 통해 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김홍규, 2008). 따라서 개인의 주관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

Q모집단이란 각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주관적 진술들의 세계로 표현되며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이나 느낌의 총체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 진술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전달의 주관적 형태 안에서 모든 메시지, 개념, 관념, 아이디어, 제스처, 대상에 관하여 Q모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각각의 Q모집단을 갖는다(김홍규, 2008). 그리고 Q모집단은 크게 문헌연구와 면담방법에 의한다. Q방법론에서의 진술문은 반드시 언어적이지 않아도 무방하며 응답자의 말이나 자연스럽게 서면화된 진술들에 추출된다. 여기서 면담은 ‘자아참조적’인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지만 면담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기록된 진술문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우수하지는 않다(Dennis, 1986; McKeown & Thomas, 1988).

논리실증주의에서는 사회적 현상이나 본질이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다시 말해서 사회적 현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의미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미의 해석을 통한 이해의 방법이 필요하다(최협, 1991). 이러한 맥락에서 스티븐슨(Stephenson)에 의하면 주관성이란 “신비스러운 것도 로맨틱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타인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한다 (Stephenson, 1967; 김홍규, 2003). Q방법론은 응답자 스스로가 진술문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함(sorting)으로써 이를 모형화시키고 결국 그의 주관성을 스스로 표현해 가는 것(operant)이다(김홍규, 2003). 결국 Q방법론은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 부터 이해하는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Q방법론이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스스로 그들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 가는 자결적 정의(operant definition)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김홍규, 1992).

## 2. Q방법론의 특성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인 R방법론은 인간의 행태나 태도를 연구하려는 행태주의적 전통이며, 연구자의 관점에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하는 과정을 거쳐 과학성을 추구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척도는 연구자가 정의한 바에 따라 결정되며 연구대상자는 연구자가 결정한 정의에 따라 행태와 태도를 결정한다. 반면에 Q방법론은 연구대상자의 자아참조(self-reference)에 따라 행태와 태도를 결정하며, 변수의 선험적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 연구대상자의 내적 관점에 따라 행태와 태도가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김순은 1999). Q방법론과 R방법론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첫째, R방법론은 변수들의 객관적인 패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변수들간의 관계를 연구하며, 연구를 통하여 개인으로부터 그 특성을 뽑아내고 그 결과물을 모집단 전체로까지 일반화를 시도한다. 반면에 Q방법론은 개인들의 주관적인 가치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견한 결과의 일반화보다는 주어진 상황하에서 드러나는 주관성을 유형화하려 한다(Durning, 1999).

둘째, R방법론은 연구대상의 배경적 변수들, 예를 들면 종교, 학력, 체중, 신장, 나이, 성별 등의 구조적 특성을 발견하는데 이용된다. 이

를 위해서 연구자는 종교, 학력 등에 관한 조작적 정의와 변수를 개발하고, 연구대상자는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배경적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Q방법론은 연구대상자의 특정 주제 및 자극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R방법론과 같이 연구자가 사전에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척도를 결정하지 않고 연구자가 작성한 집합(Concourse)을 통한 연구 대상자의 자아참조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자율적 의지에 의해 연구자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조작에 좌우되지 않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R방법론은 여러 가지 현상을 집약하여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내려는 방법이라면 Q방법론은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단일 현상을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세분하는 방법이다(Druning, 1999). 따라서 전자가 대규모 표본을 필요로 한다면 후자는 소규모의 선택된 집단을 필요로 한다. 또한 R방법론에서의 변수는 측정항목이나 자극인 데 반해 Q방법론에서의 변수는 사람이다(Durning, 1999). R방법론은 모집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이며 측정될 수 있는 속성이나 특성에 관심을 두지만, Q방법론에서는 한 개인으로부터 행태적 총체(behavior totality)로서 변수(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한다. 또한 R방법론은 응답자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Q방법론은 점수를 부여하므로 능동적이라 할 수 있다. R방법론은 응답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한 개관적 표현(expression)이고, Q방법론은 응답자의 인상(impression)을 주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Durning, 1999).

<표 2-1> Q방법론과 R방법론의 비교

	Q방법론	R방법론
발전배경	후기 행태주의, 현상학	행태주의적 전통
연구대상	주관적인 가치유형	객관적인 행동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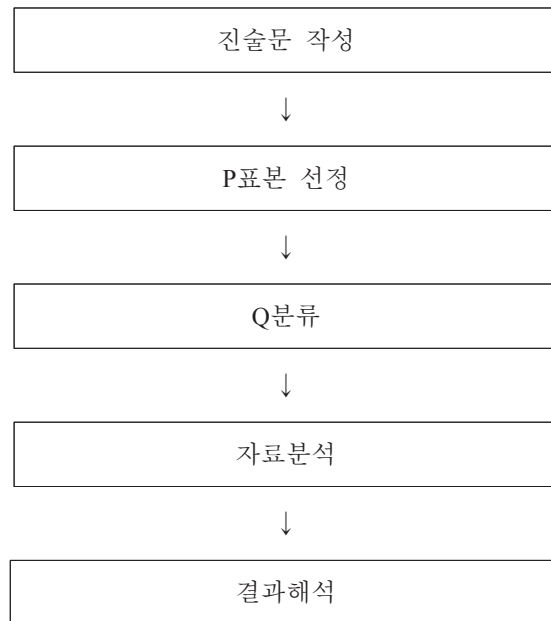
	Q방법론	R방법론
개념정의 특성	조작적 정의보다는 자절적 방 응(operant response)이 중요 -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개념이나 정의를 스스로 만 들어냄	조작적 정의와 타당도가 필수적인 -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관 찰과 측정에 용이하도록 개념을 구 체화
대상영역	연구 대상자의 특정 주제 및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구조(견 해, 개념, 가치 등)를 확인	모집단의 객관적이고 측정 가 능한 견해, 행태의 특성, 구조 및 대상자의 배경(학력, 나이 성별 등)을 발견
연구자	피험자들이 제시한 결과의 해석자	외부의 객관적 관찰자
피험자	각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 해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 사고, 태도 등을 총체적 으로 유형화하는 역할 - 연구 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자	다수의 표본 중 하나의 표본 으로서 연구자가 임의로 조작 한 변인 속에 단절적으로 점 수를 부여하는 역할 - 연구에 있어 수동적인 역할자
피험자 규모	연구목적에 관련된 소수의 주체 (1명에 대한 심층적 분석 가능)	다수의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 로 대상의 배경적 특색을 유 형화하려는 포괄적 연구
변 수	사 람	측정항목이나 자극

註) Durning, 1999; Steelman & Maguire, 1999; Dryzek and Berejikian, 1993; 정  
규호, 2000; 김순은, 1999. 참조

### 3. Q방법론의 분석절차

Q방법론의 분석절차를 보면 연구주제와 관련된 Q표본(진술문)을 작  
성하고 그 다음에는 Q분류할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며, 연구대상자에게  
Q표본을 Q분류과정에 의해 분류하게 한 후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  
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Q방법론의 분석절차



첫째, Q방법론의 분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Q진술문을 작성하는 작업이다. 연구주제에 관한 Q진술문은 전통적인 R방법론에 있어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의 중요성과 유사하다(김순은, 1999). Q방법론의 적용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변수가 되며 진술문을 분류한 연구대상의 집단이 Q요인이 되며, 각각의 Q요인은 작성된 진술문에 의해서 해석되기 때문이다. Q표본은 Q분류를 위해 피험자에게 제시하는 일련의 자극(진술문)을 말한다. 표집된 자극 하나 하나를 각각 Q진술문이라고 하고 일련의 Q진술문을 흔히 Q-set 또는 Q sort라고도 한다. Q표본의 형태에 관한 분류로 Kerlinger(1986)이 제시한 비구조화 Q표본(unstructured Q sample)과 구조화 Q표본(structured Q sample)이 대표적이다. 비구조화 Q표본은 특별한 연구설계가 없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모든 문장이

Q진술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구조화 Q표본은 피셔식 실험 및 분산 분석 설계원리(Fisherian Experimental and Analysis of Variance Design Principle)에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론화를 지향하는 진술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제약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비구조화 Q표본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Bruce Mckeown & Thomas(1988)는 Q표본을 대비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자연적인 것(naturalistic)과 기성적인 것(ready-made)의 대비이고, 구조적인 것(structured)과 비구조적인 것(unstructured)의 대비이고, 위 두 가지를 혼합한 것(hybrid)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Q표본은 Q진술문의 자료수집 측면에서 자연적 표본과 기성 표본 그리고 이 둘의 혼합인 혼성 표본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구조의 측면에서 비구조화 표본과 구조화 표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진술문의 형태적 특징은 다음의 <표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t;표 2-2&gt; 진술문 분류

분류기준	표본의 종류	진술문의 특징
자료수집 측면	자연표본	Q분류자의 의견을 반영, 문항이 반응자 자신의 의사소통 수단을 기초로 작성, 변질된 의미에 의해 반응자의 의미를 흐리게 하거나 혼란시키는 위험을 줄임(진술문의 원천은 여론, 구술, 글, 월, 면접 등)
	기성표본	연구대상자의 직접적 의사가 아닌 다른 자원에서 Q 진술문을 추출한 것
구조적 측면	구조화 표본	요인실험설계에 의해 연구자가 설계하거나 정의한 실험조건에 따라 Q 문항을 작성하는 것 - Fisher 실험 및 분산분석 설계원리에 따라 작성
	비구조화 표본	직접주제와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수많은 진술문을 작성한 후 대표적 진술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註) McKewon & Thomas, 1988; 백용덕, 1999; 김순은, 1999. 참조



둘째, Q방법론에 있어 연구대상자는 작성된 진술문을 Q분류하는 응답자를 의미한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주체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며 목적의식적으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최대화하도록 해야 한다(정규호, 2000). P표본(P-sample)의 수에 따라 심층적 연구(Intensive Study)와 포괄적 연구(Extensive Study)로 구분할 수 있다. 심층적 연구는 1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상이한 상황을 부여한 후 상이한 상황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 성격에 적합한 1명만을 선택하면 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서 포괄적 연구는 P표본의 수가 30명에서 50명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30명에서 50명의 표본도 무작위로 추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P표본들이 연구주체와 관련하여 대표적이고 포괄적이면 개인의 주관성에 대한 객관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Q진술문과 연구대상자가 결정되면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식, 견해 또는 태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즉, Q분류는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의 내적 중요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으로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일정 수의 진술문을 카드에 인쇄하고, 인쇄된 진술문 카드를 선정된 대상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에 따라 Q분류판에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다(백용덕, 1999). Q진술문을 분류하는 방법은 강제분포(Forced-distribution)와 자유분포(Unforced-distribution)가 있다. 강제분포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설계에 따라 Q진술문을 일정한 숫자대로 강제 배분하는 방법이며, 자유분포는 연구대상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Q진술문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강제분포의 방법은 정규분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권유한다(McKewon & Thomas, 1988; Brown, 1980).

넷째, 연구대상자로부터 Q자료가 수집되면 자료를 입력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먼저 P표본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상관분석을 토대로 요인분석이 진행된다. 요인이 추출되면 요인들간의 회전(factor

rotation)이 이루어진다. 요인회전의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리맥스(Varimax), 쿼타맥스(Quartimax), 이퀴맥스(Equimax) 등의 방법이 있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센트로이드(Centroid) 방식이 있다. 실제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리맥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 이것은 배리맥스 방법이 추출된 요인들을 가능하면 많은 수의 Q분류를 포함시키는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는 연구에서는 아이겐값(Eigen value)이 1.0 미만의 경우에도 의미있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Q방법론은 통계학적 논리와 상황적 논리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Q방법론을 통한 요인분석은 과학적 판단보다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Q방법론은 연구대상들의 주관적(subjective)이고, 자기 준거적인(self-reference) 견해나 가치들을 연구자의 가치개입 없이 신중히 다루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해석적(interpretative)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0). 다시 말해서 요인분석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맥락(contextuality)이 강조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자 자신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인에 대한 해석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제시되는 요인별 점수에 근거하여 해석을 시도한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도출된 Q요인들은 연구주체에 대해 공통된 견해 내지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다(Brown, 1980; 김순, 1997).

##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Q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특정 주제에 대한 Q표본과 모집단, P표본, Q분류 및 분포, 자료처리, 결과분석 및 해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011년에 발표된 논문 중 Q방법론이 적용된 분야를 보면 다음의 <표 2-3>과 같이 문화, 경찰, 간호, 심리, 정치, 음악, 경제, 복지, 법, 행정, 윤리, 통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자연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정부제도분야로 편의상 대별하였으며, Q방법론이 적용된 선행연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첫째는 자연환경분야로서 <환경보존 담론의 유형에 대한 Q방법론적 연구>, <문화도시 만들기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을 고찰하였고, 둘째는 사회복지분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과 운영에 대한 인식연구>, <청장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과 유형>을 검토하였으며, 셋째는 정부제도분야로 <전자정부의 개념정립과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내부고발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유형분석 연구>를 각각 검토하였다.

<표 2-3> Q방법론 적용연구

논 문 명	연구자	분 야
Q방법론을 적용한 문화예술상품 소비자 유형에 관한 연구	함현진의	문화산업
경찰 및 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Q방법론적 선호도 분석	김평수	경찰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Q-방법론적 접근	최미경외	간호학
정치현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과 심리적 기제	김도환외	심리학
인적자원개발에서의 주관성 연구의 의미	백평구의	교육학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 태도	김창남외	정치학
연구방법론을 통해 본 음악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진호	음악교육
정책용자의 경제적 성과분석	남주하	경제학
사회복지 실습지도교수와 현장수퍼바이저의 실습 수퍼비전 내용에 대한 인식연구	장수미	복지학
빈곤의 대물림에 관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인식연구	김희성	청소년학
평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유형분석	손원경외	교육학

논 문 명	연구자	분 야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입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박창우	복지학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분노표현방식 유형에 관한 연구	장혜주	가정학
문화연구 방법론으로서의 가주법이 갖는 유용성	이희은	언론학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관한 인식	조계화	간호학
Q방법론을 활용한 갈등행위자 인식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이순자	행정학
청장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과 유형	김경은	청소년학
캐나다 대학생의 한국음식 소비유형분류	김진강외	통상학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과 운영에 대한 인식연구	임정기외	정책학
한국성인이 인식하는 품위있는 죽음의 이해	조계화	윤리학

### 1. 환경보존 담론<sup>1)</sup>

환경보존 담론들의 유형화는 동일한 환경문제를 두고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이해당사자들간에 매우 다양한 가치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근거하고 있는 가치체계를 확인하고 상호간의 입장 차이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 공통의 이해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집단들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체계 즉 환경보존에 대한 담론 유형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 정규호, “환경보존 담론의 유형에 대한 Q방법론적 연구”, 환경정책 제8권 제1호, 2000, pp. 93-111.

### 1) 분석설계 및 과정

####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및 자료들로부터 환경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들을 내재하고 있는 진술문 25개를 수집하였다. 진술문의 수집 방법에는 비구조화 추출과 구조화 추출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목적에 접합한 항목들을 준거로 진술문들을 연역적으로 추출하였다.

#### (2)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학부전공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연구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여 총 20명을 P표본(P-sample)로 선정하였다.

#### (3) Q분류

25개의 진술문들을 각각 하나의 카드에 담아 연구 대상자에게 분류 절차를 설명한 뒤 1명씩 진술문들을 분류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술문들은 연구자가 예시한 준거에 따라 정규분포 또는 준정규분포 형태로 배치하도록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 해석의 용이성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하였다.

#### (4) 자료처리

먼저 주성분요인분석을 한 후 아이겐값(Eigen value) 1.0 이상인 요인 5개를 의미있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5개 요인들의 적재값 백분율은 76%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lt;표 2-4&gt; 유형별 아이겐값과 총변량

유형	아이겐값	총변량(%)
A	7.4	37.0
B	3.1	15.0
C	1.9	10.0
D	1.5	8.0
E	1.3	6.0

## (5) 분석해석

담론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은 연구 참여자들 간의 공통의 견해 또는 가치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해석 과정은 양극단(+ 또는 -)의 높은 요인점수를 획득한 진술문들에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다른 요인들과 비교함으로써 진행한다.

## 2) 분석결과 및 해석

환경문제와 관련한 25개의 진술문들에 대해 20명이 분류한 자료들을 Q 분석한 결과 각 진술문들에 대한 요인값을 얻을 수 있었다. 각 진술문들이 가진 요인값을 근거로 각 요인별 특성들을 해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치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lt;표 2-5&gt; 진술문

1	자연자원의 매장량과 생태계 수용능력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의 무분별한 접근과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연을 인간이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뀌어야 할 가치관으로 자연 그 자체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
3	환경문제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하나일 뿐이며, 현재의 환경위기의식은 실재보다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제 2 장 Q방법론 논리 및 선행연구 검토

4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연자원 이용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과 지역이 기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지방 분권화는 환경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5	환경문제는 해당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이들에 의한 자발적인 환경관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6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원이용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여 한정된 자연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7	지금 당면한 환경문제는 여타의 다른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로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인류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8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9	환경문제는 특성상 통합적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중앙집중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10	인간은 단지 생태계의 한 구성원일 뿐이며 결코 다른 생물종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11	자연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인간이 개입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생태계 보존에도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2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공평한 권리를 주장하는 생물평등주의는 공평한 권리를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13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므로 기업자율에 의한 환경문제 해결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4	현재의 지구환경문제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인류 생존의 차원에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15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인간생존을 위해서는 희물의 광합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6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17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해 환경과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18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증대가 일어나면 국민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 보다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19	자연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있으므로 자연 자체의 보존을 위해 인간의 이용과 접근을 막는 것은 잘못이다.
20	현대과학기술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높여준 만큼 과학기술에 의존한 환경문제 해결노력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다.
21	자연생태계는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악 불가능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연에 대한 신중한 이용과 함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지구온난화와 같은 범지구적 환경문제는 아직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경제력과 기술력이 앞선 선진국가들에만 도움이 될 뿐이다.
2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행정의 분권화, 민주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수준과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24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2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생활양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이 각 진술문들이 가진 요인값을 근거로 각 요인별 특성들을 해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치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① A요인 : 윤리적 신중 / 민주적 관리형
- ② B요인 : 과학적 신중 / 자율적 관리형
- ③ C요인 : 기술적 낙관 / 중앙집중적 관리형
- ④ D요인 : 윤리적 신중 / 중앙집중적 관리형
- ⑤ E요인 : 과학적 탐색 / 중앙집중적 관리형



<표 2-6> 각 요인의 특징

요인	내 용		
	환경문제	실천윤리	실천전략
A	위기	생물평등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 확대
B	위기	약한 인간중심주의	자원이용의 불평등구조 해결
C	해결가능	강한 인간중심주의	경제성장을 통한 과학기술개발
D	위기	생물평등주의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
E	해결가능	강한 인간중심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객관적 탐색

### 3) 결 론

환경문제 자체에 공동적으로 관심을 가진 집단들 내에서도 상이한 가치체계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실천 전략 면에서도 각각 상이한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의 유형화 시도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모호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가치체계들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 줌으로써 상호간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차이의 확인은 곧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한 관점에서 환경문제의 특성과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시켜 주는 출발점이며, 합의형성의 준거와 필요성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성공여부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한 적절한 정보의 생산능력에 달려있으며 이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간의 적절한 소통체계를 확보하는데 가능하다. Q방법론을 적용한 환경문제의 담론분석을 통해 정책공동체의 자

기성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 2. 문화도시 형성<sup>2)</sup>

문화도시는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도시구성원들이 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문화 인프라를 토대로 도시 경쟁력을 향상된 도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이념적, 실천적 인식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고리를 찾아보는 것이 사업성공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전문가집단의 구체적인 인식의 지형도를 통하여 갈등의 주요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실무계획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1) 연구방법

#### (1) P표본 및 Q표본의 선정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일차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기존 연구를 토대로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둘러싼 담론 전개에 한 축을 담당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예술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 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추진단 산하 직원, 그리고 각 참여주체들의 담론이 대중에게 전파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인을 포함하여 모두 35명을 P표본으로 삼았다.

둘째, 연구자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문화중심도시사업과 관련된 P표본들의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총 42문항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Q전집은 특정 주제에 대한 담론의 총체이다. 이 담론의 총체 중에서

---

2) 김영기·한선, “문화도시 만들기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7권 3호 2007, pp. 39-80.

연구의 목적에 맞게 추출한 진술문이 Q표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Q표본은 광주와 문화도시 일반에 대한 개념, 문화중심도시의 정체성, 문화중심도시 성공전략, 문화중심도시 추진방향 및 전략, 문화중심도시의 집중 육성 분야 등 모두 5개 하부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 (2) 연구절차

본 조사는 3명의 조사원이 2007년 1월 2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Q표본인 진술문을 카드형 제시문으로 만들어 이를 응답자가 주어진 난에 빠짐없이 배치하도록 하는 강제분류(forced sort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응답자가 각기 선택한 진술문들의 점수 분포가 반드시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하는 방식이다. 먼저 응답자들에게 진술문 전체를 읽게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을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중간이거나 찬성과 반대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룹 등 모두 3개 그룹으로 나누도록 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42개 진술문이 찬성과 반대의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분류하였다.

## 2) 분석결과

수집된 자료는 Q-방법론 전문 통계프로그램인 QUANA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가지 유형이 나왔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변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각 유형별 아이겐값(eigen value)은 유형 1이 22.4, 유형 2가 2.01, 유형 3이 1.38, 유형 4가 1.25로 나타나 유형 1이 가장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35명이었지만 유형 간 차이를 극대화하는 통계처리과정에서 2명의 응답자는 제외되었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2-7>과 같다.

&lt;표 2-7&gt; 유형별 아이겐값과 총변량

유형	아이겐값	총변량(%)
1	22.4	64.1
2	2.01	5.8
3	1.38	4.0
4	1.25	3.6

## (1) 유형 1 : 시민 참여적 문화도시 지향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비록 외부 정치적 인자에 의해 추진된 것이지만 추진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적 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유형 1은 조성사업의 정책 추진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반면(Q 28), 유형 2는 오히려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주도를 희망하고 있다(Q 26)는 점에서 두 유형의 차이가 분명히 갈라졌다. 지향점이 비슷하지만 목표에 이르는 과정과 전략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유형 1과 유형 4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이념적 분포가 가장 비슷하였지만, 정책 추진을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 (2) 유형 2 : 정책 주도적 문화도시 지향형

유형 2의 특징은 ‘행정 주도적 도시발전 패러다임’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화중심도시의 개념과 지향점과 관련해서는 유형 1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문화주의적인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추진주체와 추진과정의 강조점을 행정주도의 발전 패러다임에 두고 있었다. 또 다른 유형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나 과정보다는 총론 수준의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

다는 점도 이 유형의 사람들이 보여준 특징이었다.

(3) 유형 3 : 지역경제 발전 문화도시 지향형

유형 3의 특징은 문화를 매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경제발전 우선주의’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들은 문화와 경제를 결부시켜 경제적 이윤과 연결되지 않는 문화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아래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프트웨어적인 문화도시 구축보다 생산 유발과 소득 유발, 고용유발 등 직접적인 효과가 큰 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으면서 문화상품 개발의 원천이 되는 문화콘텐츠에 주목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윤과 결부된 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발전의 선순환 모델을 도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 유형 4 : 혼합형

이 유형은 앞서 살펴본 유형 1, 2의 특징을 공유하는 절충형이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향점과 추진과정 등 전체적으로 유형 1과 유사했지만 광주나 문화도시 일반에 대한 개념, 추진주체 면에서는 유형 2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생태적으로 잘 갖추어진 도시환경과, 예술가들의 창작과 교류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책 추진과 집행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3) 결 론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문화도시의 정의와 개념에 있어서는 순수 문화주의에 가까웠고 이를 실천하는 전략 면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첫째, 유형 1은 개발주의와 문화주의의 대립에서는 문화주의에 가까운 시각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지역과 중앙의 대립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한쪽의 입장을 취하기보다 의견수렴과 숙고의 과정을 통해 주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유형 2는 문화도시의 목표와 지향점에 있어서는 유형 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참여구조를 강조했던 유형 1과 달리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달랐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문화관광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문화도시란 문화정책이 잘 갖추어진 도시’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성취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셋째, 유형 3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유형이었다. 이들은 문화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높은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문화와 예술 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것이 문화중심도시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를 위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나 문화상품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넷째, 유형 4는 유형 1과 유형 2의 혼합형으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향점과 추진과정 등 전반적인 면에서는 유형 1과 유사했지만 광주나 문화도시 일반에 대한 개념, 추진주체 면에서는 유형 2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문화도시의 정의와 개념에 있어서는 순수 문화주의에 가까웠

고, 이를 실천하는 전략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유형간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않고 있으며 동일한 유형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총론수준의 개념이나 목표, 지향점에서는 유형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천전략이나 추진방향, 집중 육성분야 등 구체적인 실천방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볼 때 Q방법론 연구결과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 내지 개념 및 실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엿볼 수 있다.

### 3.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sup>3)</sup>

본 연구에서는 케어매니지먼트가 개별 욕구를 충족시키고, 한편으로 서비스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집단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케어매니지먼트를 직접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개별화된 욕구를 중시하는 것인지 표준화된 비용 통제를 중시하는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케어매니지먼트의 개념과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조사 및 분석방법

##### (1) Q진술문 작성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도에 의환 외부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적으며 연구대상자들이 진술문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는 구술형을 활용

---

3) 임정기·최명민·김옥,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과 운영에 대한 인식연구 -장기요양관리직원의 인식에 대한 Q방법론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 18집 제3호, 2011, pp.191-222

하였다. 연구주제에 대한 대표성과 포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4개 지역(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에서 4명씩 총 16명의 장기요양관리요원들을 대상으로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 판단기준, 문제점 및 개선점 등에 관한 총 112개의 다양한 진술문들을 수집하여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진술문들은 우선 중복성과 상이성을 기준으로 총 50개의 진술문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노인요양보호제도 전문가 2명의 자문과정을 통해 대표성을 기준으로 진술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총 34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 (2) P표본의 표집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인식유형을 위한 것이므로 연구대상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원들이다. 최종적으로 전국 5개 지역 장기요양관리요원 40명을 표집하였으나 부실응답자 2명을 제외한 38명으로 P 표본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34개의 진술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4(강한 긍정)에서 -4(강한 부정)의 9점 척도의 정상분포방식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표 2-8> 진술문

1	급여계획은 한도비용 내에서 가능한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무분별한 급여를 제한하기 위해 서비스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
3	치매노인은 반드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를 받도록 해야 한다.
4	단기보호 대상과 시설보호 대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5	주거환경은 목욕서비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
6	대상자가 원할 경우 급여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제 2 장 Q방법론 논리 및 선행연구 검토

7	표준이용계획서보다는 개별화에 초점을 맞춘 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8	지역별, 직원별로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의 편차가 큰 것 같다.
9	독거노인의 경우 시설입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표준이용계획서의 작성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11	표준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12	주요기능상태에 따른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양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13	급여계획 시 대상자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4	표준계획서는 급여제공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좋다.
15	서비스 내용과 종류를 결정할 때 대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16	계획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 제도가 필요하다.
17	실질적인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담당직원을 늘려야 한다.
18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19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을 표준화하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20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계획서를 더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21	급여계획 시 주 수발자의 유무 및 건강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2	급여계획 시 대상자의 방임이나 학대 등 수발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3	적절한 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4	주요기능상태 작성이 획일적이어서 개별 특성을 기술하기 어렵다.
25	급여계획 시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6	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결정하는데 내 전문적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다.
27	서비스 제공시 표준이용계획서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28	의견소견서의 내용이 표준이용계획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29	표준이용계획서는 주기별로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점검하여 수정해야 한다.

30	급여의 종류를 대상자와 보호자가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1	급여계획 시 대상자의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2	서비스 내용과 제공시간에 대한 계획 작성시 서비스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33	서비스 양을 결정하는데 판정 등급이 중요하다.
34	서비스 이용계획은 지역서비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 (3) 분석방법

분석은 PQmethod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따라 사다리꼴로 강제분포한 연구대상자 38명의 진술문을 Q분류에 입력하고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방식에 의해 8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 2) 분석결과

### (1) 결과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견해, 인식, 태도를 의미하는 요인은 3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 4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요인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본 결과, 4요인 모형이 보다 요인 간 차별성을 갖고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4요인 모델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 (2) 유형

#### ① 제1유형 : 전문성 중시형

충분한 수의 훈련받은 전문적 케어매니저의 확보와 이들에 의한 객관적이면서도 개별화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실제적 수행에 비중을 두고 있다.

② 제2유형 : 기준 보완형

기존 표준이용계획서의 기준 외에 단기보호 대상과 시설보호 대상의 구분, 기능상태 중시 및 그에 따른 표준화, 독거노인에 대한 특성화된 접근 등의 속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제3유형 : 대상자 욕구 중시형

대상자의 욕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의 기능을 중시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주 수발자 상황까지도 총체적으로 고려하며, 이 때 필요하면 급여 한도액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유형이다.

④ 제4유형 : 표준이용계획서 중시형

현재 표준계획서를 소홀히 다루는 것에 유감을 갖고 있으며, 표준계획서를 대상자 기능에 따라 제대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서비스 결정 시 표준계획서를 근거로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유형간 비교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원들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표준이용계획서와 관련하여 비중을 두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4가지 인식유형 모두에서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공통 진술문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제1유형은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개별화된 판단을 내리는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이들에 의해 작성된 이용계획서를 현장에서도 당연히 신뢰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유형 역시 표준이용계획서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제1유형과 유사하지만, 그 전에 이용계획서에 좀 더 대상

자들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되고 표준화된 판단기준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화된 전문가의 판단을 중시하는 전문성 중시형과는 차이가 난다. 제3유형은 대상자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이용계획서 작성과 이행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제1유형인 전문성 중시형과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객관성이나 표준화, 그리고 이용계획서의 현장 준수에 비중을 적게 둔다는 점에서 내용이 다른 인식유형들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제4유형은 전문가의 판단에 비중을 두지 않으며, 특정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에도 반대한다.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원들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다양한 입장의 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4. 노후인식<sup>4)</sup>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장년층은 노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한 시점에서 청장년층이 인지하는 노화에 대한 주관성 유형을 파악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장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를 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1) 연구설계

###### (1) P표본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성공적 노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P표본은 20~30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

4) 김경은, “청장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과 유형: Q방법론적 접근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7호, 2011, pp. 185-208.

면담에 참여한 자는 총 30명으로 참여자 모두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을 들은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였다.

(2) Q표본의 구성

Q모집단 추출을 서울시 중심 일반인을 대상으로 250명의 심층면접과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총 226개를 추출하였다. 이들 Q모집단에서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은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 끼리 배열한 후 범주화를 시도하여 이 중에서 서로 중복된 개념들을 제거하고 표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11개의 범주에 대한 대표적인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26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추출된 진술문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간호학과 교수들의 자문을 구한 후 내용의 중복여부 및 표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진술문을 수정하였다.

(3) Q표본의 분류과정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P표본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26개의 카드를 읽은 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7점 척도 상에 강제 정규분포 하였다. 각 Q표본 분류시에는 양극에 놓여있는 적극 동의하는 항목과 적극 반대하는 항목에 대하여 선택이유를 진술하도록 하였다.

<표 2-9> 진술문

1	노년에는 부부가 금실 좋게 해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성공적인 노후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3	노후에는 의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4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5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노후에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성공적인 노후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다.
7	노후에 가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것은 중요하지 않다.
8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9	성공적인 노후란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10	노인이 된 후에도 계속 여가생활(사회봉사, 취미..)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11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다.
12	성공적인 노후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다.
13	노년에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14	노후에는 편리한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15	노후에 정든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은 중요하다.
16	성공적인 노후란 삶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
17	노후에도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18	노인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나 나라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19	남은 삶에 대해 희망을 갖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20	성공적인 노후란 욕심 없이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다.
21	성공적인 노후란 지금까지의 삶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다.
22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23	성공적인 노후란 자식들의 효도를 받는 것이다.
24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25	자식 모두가 결혼해서 걱정 없이 잘 산다
26	노후에는 종교적 믿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2) 연구결과

### (1) 청장년층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주관성 유형 분석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청장년층의 주관적 태도는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자 30명은 제1유형에서 11명, 제2유형에 13

명, 제3유형에 6명으로 나타났으며, 인자가중치가 1.00 이상인 사람은 제1유형에 8명, 제2유형에 5명, 제3유형에 3명이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2-10>과 같다.

<표 2-10> 유형별 아이겐값과 총변량

유 형	아이겐값	총변량(%)
1	13.1	43.6
2	2.6	5.2
3	1.6	5.8

(2) 유형별 분석

- ① 제1유형 : 의욕적인 자아수용
- ② 제2유형 : 동반자적인 삶
- ③ 제3유형 : 가족 중심 화목형

(3) 유형들의 공통적 견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세 가지 유형은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각 유형간에 공통적으로 일치된 항목은 4개이다. 모든 대상자들이 강하게 찬성한 항목은 성공적 노후란 ‘노년에는 부부가 금실 좋게 해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강하게 반대한 항목은 ‘노후에는 의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노인이 된 후에는 계속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노후에는 편리한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청장년층이 인지하는 성공적 노후는 부부금실, 여가생활과 함께 의욕적으로 편리한 곳에서의 생활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 3) 결 론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보면 연구대상자 모두가 건강상태가 양호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집단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대상자에 대한 주관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므로 청장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을 대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직업, 학력, 경제력, 건강수준 등의 항목을 다양화시켜서 P표본을 선정하고 또 다른 통계적 기법을 통해 해당연구의 심층분석 내지 비교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 5. 전자정부<sup>5)</sup>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성된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정부형태를 전자정부로 규정하고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 및 주요 성공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일정정도의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관련된 문제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Q모집단의 구성과 Q표본의 선정 및 설문지를 준비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P표본을 선정하였고, 제3단계에서는 Q분류와 추후면담을, 제4단계에서는 자료의 처리와 분석을 하였다.

---

5) 김성준, “전자정부의 개념정립과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1998.



(1) Q표본의 선정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자정부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 90개의 Q모집단이 수집되었다. Q표본의 선정은 Q모집단 중 내용의 중복여부 및 표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진술문을 수정한 후 각 항목의 주제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거나 변별력이 높은 상이한 의미를 나타내는 진술문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종 Q표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48개의 Q표본이 추출되었으며 설문항목의 비율은 ‘전자정부의 일반적 의의’에 관한 진술문이 16개, 그 이외의 요인들에서 32개가 추출되었다.

<표 2-11> 진술문

1	전자정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2	산업사회의 정부형태인 관료제 정부는 지식·정보사회에는 맞지 않는다.
3	세계화 및 지방화로 인해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4	전자정부는 행정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공유·유통·전달되는 정부를 의미한다.
5	전자정부의 주된 활용공간은 사이버스페이스가 될 것이다.
6	전자정부는 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의미한다.
7	전자정부는 정부조직 내부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8	전자정부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9	전자정부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달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10	전자정부는 관료제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11	전자정부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이다.

12	전자정부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다.
13	작은 정부의 실현과 업무의 효율화에 정보통신기술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미약하다.
14	고객중심의 정부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기업 경영적인 인상을 준다.
15	전자정부는 어떠한 정보통신기술들이 정부에서 활용되는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6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나타난 효과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17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재정자원 보다 정보자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18	정보자원은 정부업무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19	법과 제도의 정비는 전자정부구현의 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추진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20	전자정부에서의 정부조직의 개혁은 제도와 구조의 개혁이 아닌 업무과정의 재설계를 의미한다.
21	정부조직 내에는 CIO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22	현재 국민들이 정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너무 한정되어 있다.
23	전자정부에서는 국민들간의 정보화 빈부격차가 심각해질 것이다.
24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25	불법적인 정보의 유출로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는 정보공개는 어두운 면은 늘 상존한다.
26	행정정보DB의 공동활용은 전자정부 구현의 가장 현시적인 당면과제이다.
27	행정정보DB의 공동활용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전체의 표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8	행정전산화와 정보화는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많이 경감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제 2 장 Q방법론 논리 및 선행연구 검토

29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집행기구는 정보통신부와는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	기존에 무료였던 정부서비스라도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31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에만 치우쳐 기존의 조직, 인사형태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
32	공무원들은 전자정부 구현의 과정에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쉽게 재교육 될 수 있다.
33	정부최고위층의 전자정부 구현 의지는 다른 어떠한 지원보다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34	국민들은 전자정부를 향한 정부의 행정개혁 모델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5	전자정부는 공무원의 태도변화를 일으킬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36	전자정부의 대 국민적 효과는 One-Stop, Non-stop 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37	행정전산화와 정보화를 통해 정형화된 업무가 많이 자동화되었다고 생각한다.
38	전자결재제도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적극 활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39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은 행정정보의 유통과 서비스전달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0	전자우편이나 EDI를 통해서 문서를 받더라도 종이로 된 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고 싶다.
41	전자주민카드 실시계획의 재검토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42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이다.
43	전자상거래와 EDI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4	정부 내에 도입될 정보통신기술은 최신기술보다는 꼭 필요한 기술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45	정보자원관리의 핵심은 정부내 문서의 유통과 관리에 가장 크게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46	정부내에는 정보화정책을 집행, 평가, 환류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47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계적 파악이 가능하며 기간별로 추진시책을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8	정보의 생산과 가공에서 정부는 기업 등의 사적영역에 비해 계속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다.

### (2) P표본 표집

본 연구에서는 Thompson이 주장한 5개의 집단에서 P표본을 선정하지 않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전산원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자와 정보통신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 18명의 P표본을 선정하였다. P표본을 두 개의 집단에서 선정한 이유는 정부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정책분석가의 입장과 관료의 입장을 이들 두 집단이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3) Q표본 분류

진술문의 수가 48개나 되고, E-mail과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비강제분류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진술문들은 7점 척도로 하여 +3, +2, +1, 0, -1, -2, -3 표기하도록 의뢰하였다. 한국전산원의 연구원들에게 E-mail을 이용해서 설문지 발송하였고,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게는 방문을 통하여 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게서 각각 9부의 설문지가 입수되었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표본으로 표집된 18명에 대한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코딩은 Q진술문에 기록된 진술문

항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경우(-3)를 1점으로 시작하여 2점(-2), 3점(-1), 중립 4점(0), 5점(+1), 6점(+2) 그리고 가장 찬성하는 경우(+3)에 7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 2) 연구결과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한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에 대한 주관성을 알아본 결과 정책관련자들의 주관성은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연구자적 견해이고 제2유형은 정보화 마인드를 가진 관료적 견해이다. 요인들의 전체분산도는 제1유형이 33.39%, 제2유형이 6.16%이었다. 따라서 2가지 유형에 의해 설명되는 총 변량은 39.55%였다. 또한 2개 유형의 변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인 아이겐 값은 각각 6.0096, 1.1097로 나타났다. 각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소속을 보면 제1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전산원의 연구원들이었고, 제2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각각의 시각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2-12>와 같다.

<표 2-12> 유형별 아이겐값과 총변량

유 형	아이겐값	총변량(%)
1	6.0	33.4
2	1.1	6.2

### 3) 결 론

제1유형인 ‘연구자적 견해’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고 탄력적인 인식 및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2유

형인 ‘정보화 마인드를 가진 관료적 견해’는 전자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나 관심보다는 정부의 정보화와 그에 관련된 정보통신부의 입장에 좀 더 충실하면서 약간의 관료제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1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한국전산원의 연구원들이고, 제2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상이한 역할과 지위가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서 정책관련자의 주관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상이한 견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질문지 구성에 있어 전자정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선정되었는가에 대한 회의이다.

## 6. 내부고발 인식<sup>6)</sup>

본 연구에서는 내부고발 발생이 관료부패의 억제도구로서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의 주체인 관료들이 내부고발 발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내부고발 발생에 대한 관료의 주관적 태도와 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인식 유형을 분류하여 내부고발 제도화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1) 연구설계

#### (1) 진술문 작성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기존문헌의 검토 및 주요 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게재된 사설, 인터뷰 등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104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중 의미가 분명하고 내부고발에 대한 포괄적, 대표적 내용을 담고 있는 48개의 진술문을 연구

---

6) 김옥일, “내부고발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유형분석 연구: Q방법론의 적용”, 영남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0.

목적에 적합한 항목들을 준거로 하여 비구조적방법에 의해 최종 추출하였다.

<표 2-13> 진술문

1	내부고발은 개인의 양심적 판단에 의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에 토대를 둔 행위이다.
2	내부고발은 개인적 문제에 관한 개인의 양심적 반항과 그 결과 빚어진 억울한 사연의 공개이다.
3	내부고발을 통해 공직사회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4	동양적 엽관문화가 뿌리깊은 우리사회에서는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로 응징 받을 수 있다.
5	현행의 규정들은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고발 자체를 속박하고 있다.
6	부분별한 내부고발의 급증을 막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고발을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7	내부 고발은 공익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 내 비리를 밖으로 드러내는 의로운 행위이다.
8	내부고발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언제나 동기가 순수한 것만은 아니다.
9	조직 부패는 내부에서 부패관행에 저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부에 알리는 고발자가 있어야 척결될 수 있다.
10	내부고발제는 허위나 무고에 의한 폭로가 난무하게 되어 조직원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11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받도록 규정해야 한다.
12	내부고발자의 보호문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하며, 내부고발을 법으로 막거나 장려 할 일은 아니다.
13	내부고발은 자신의 미래를 희생할 결단을 가진 사람의 몸이다.
14	내부고발은 비타협적이고 결벽적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15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여기는 현재의 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
16	동양적인 관료사회에서 내부고발제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공직사회가 더 경직될 우려가 있다.

17	내부고발 결과가 국가 예산의 낭용을 막을 경우 일정액을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18	내부고발 활성화가 지나쳐 음해, 무고, 풍조가 조장될 우려 등 역기능에 대해서도 시행할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
19	원칙에 철두철미한 사람만이 내부 비리를 고발할 수 있다.
20	내부고발은 조직구성원 중 괴짜에 의한 행위이다.
21	내부고발은 불법적 활동의 자율적 억제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크다.
22	아랫사람의 반항이나 이의 제기는 그 자체가 부덕한 것이다.
23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입법화되면 과거 내부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24	내부고발제는 조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다 민주적인 부정방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25	내부고발을 행하는 사람은 목인, 타협보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진 사람이다.
26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통제와 관행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27	시민단체활동과 언론활동의 활성화에 의해 내부고발행위가 지지된다고 생각한다.
28	내부고발이 발생할 경우 될 수 있는 한 조직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9	불법활동과 권한남용, 국민건강 및 안전에 위협한 활동을 신고한 경우 정부는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30	내부고발은 직무상의 무능력, 조직에의 부적용이나 승진누락 등과 같은 개인적 불만에 대한 표출행위에 불과하다.
31	내부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권리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32	내부고발은 조직목표에 갈등을 느낀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33	조직 구성원의 인권의식과 권리주장의 확산에 의해 조직 내 양심선언이 발생한다.
34	조직내 비리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로서 요주의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
35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부고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공직자 사지진작을 위한 봉급의 인상이 필요하다.
36	내부고발자는 개인의 경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 2 장 Q방법론 논리 및 선행연구 검토

37	물질적 풍요와 고용 가능성의 증진에 의해 내부고발이 발생된다고 생각된다.
38	조직내의 비리폭로는 조직의 권위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39	공익적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행한 사람을 조직 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40	내부비리의 제보자는 가족의 고통, 인간관계의 파괴, 직업의 상실, 금전적 문제 등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
41	내부고발제는 조직을 정화하는 중요한 부패통제장치로 부패 감시에 큰 역할을 한다.
42	조직내의 비리고발자에 대해 동료들은 부담스러워하며 멀리하게 될 것이다.
43	내부고발제도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공무원범죄를 조기적발, 피해확대를 막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4	조직 비리고발자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심적으로 ‘고독의 섬’에 갇히게 된다.
45	내부고발은 국민의 알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
46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 동료간의 우정과 신뢰 제고를 전통적으로 존중하는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
47	부패가 내면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하여 방지될 때 정부의 감사 및 감독 비용과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48	내부고발제는 경박스럽고 저질적인 폭로의 만연으로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2) P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는 관료조직에 있어 내부고발의 주체인 관료들의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직급과 근무부서의 배경을 가진 경상북도 지역 공무원 3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Q분류

내부고발에 관한 진술문 중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4) 2개, 그 다음에 동의하는 진술문(+3) 4개,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4) 2개, 그 다음

으로 반대하는 진술문(-3)을 4개 등등의 준정규분포로 설계된 분류판에 연구대상자가 진술문을 분류하도록 하는 강제분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Q분류 단계에 따라 내부고발과 관련된 48개의 진술문을 연구대상자가 분류판에 분류한 후 이를 Q분류기록용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48개의 진술문에 대한 30명 피험자의 응답을 30-by-30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요인분석하고 추출된 요인을 배리맥스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회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PQmetho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성분요인분석을 한 후 아이겐값이 1.0 이상인 요인 5개를 의미 있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선정된 5개의 요인들을 배리맥스 방법을 통해 요인 회전을 수행한 후 Q분석을 통해 서로를 구분하고 각각을 특성화시키는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2-14>와 같다.

<표 2-14> 유형별 아이겐값과 총변량

유 형	아이겐값	총변량(%)
1	8.9	30.0
2	3.8	13.0
3	2.1	7.0
4	1.8	6.0
5	1.6	5.0

#### 2) 분석결과 및 해석

내부고발 관점과 관련된 48개의 진술문에 대해 30명이 분류한 자료들을 Q 분석한 결과로 각 진술문들에 대한 요인값을 얻을 수 있었다.

- (1) 제1유형 : 조직문화 수용의 낙관적 시각 / 보호제도화 도입의 소극형
- (2) 제2유형 : 조직문화 수용의 회의적 시각 / 보호제도화 도입의 우려형
- (3) 제3유형 : 조직문화 수용의 회의적 시각 / 보호제도화 도입의 조건부지지형
- (4) 제4유형 : 조직문화 수용의 낙관적 시각 / 보호제도화 도입의 지지형
- (5) 제5유형 : 조직문화 수용의 회의적 시각 / 보호제도화 도입의 회의형

조직내 내부고발에 의한 Q분석결과 각각의 요인들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자 않는 공통된 속성의 진술문은 2개(18, 41)이다. 이 중 요인가가 높은 18번 진술문은 진술문에 대해 A유형과 B유형은 +3을 부여함으로써 매우 강하게 동의하고 있고 C유형, D유형, E유형은 각각 +1, +2, +1을 부여함으로써 약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유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부고발의 활성화에 있어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5가지 유형은 상이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형간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부고발의 활성화에 있어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유형을 도출하였지만 표본을 확대하거나 다른 진술문을 구성하여 이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유형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새롭게 R방법론을 적용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본 연구를 보완하는 연구로서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제 3 절 시사점 및 한계

Q방법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유형간 차이점과 공통점이 발견되면 특정 주제 내지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소통체계를 확보하고 공동체로서의 자기성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특정 주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진술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형간 차이가 명료하지 않고, 또한 동일한 유형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구조화 Q표본에 기인하기도 한다. 즉, 비구조화 Q표본은 특별한 연구설계가 없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 내지 문제 및 개념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다양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진술문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Q방법론 연구의 대부분이 비구조화 Q표본을 이용하고 있다.

셋째,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객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의 결과로 밝혀진 유형들을 새롭게 R방법론을 적용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두 방법론의 결과를 비교한다든가 또는 직업, 학력, 경제력, 건강수준 등의 항목을 다양화시키고 또 다른 통계기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표준화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으로 연계함으로써 Q방법론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또한 상이한 역할과 지위에 있다면 개인들의 주관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가장 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추출방법과 규모와 관련이 있다. 즉, 무작위추출에 의하지 않고 적은 수의 연구대상자를 토대로 산출된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이다. Q방법론을 “가설발견의 논리”라고 명명하는 것도 Q방법론의 이러한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Q방법론의 적용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무작위추출에 의한 다수의 표본에 적용하여야 한다(Kerlinger, 197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표본을 확대하거나 무작위추출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 제 3 장 입법평가에의 적용가능성

### 제 1 절 Q방법론의 연구설계 개요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석절차를 보면 Q모집단으로 불리는 진술문의 수집, Q표본에 해당하는 진술문의 선정, P표본으로 표현되는 연구대상자의 선정, 연구대상자들의 Q분류,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한 처리 및 분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sup>7)</sup>

#### 1) Q표본과 모집단

연구설계상 Q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Q모집단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터뷰나 방대한 문헌조사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인터뷰나 문헌조사에 의존하여 모집단인 진술문을 수집해나간다. Q표본이란 응답자에 의해 분류되는 진술문으로 카드위에 새겨진 진술문을 말하며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다. 자아참조적, 자결적(operant)이라는 Q방법론의 특징은 Q진술문의 구성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은 Q진술문의 구성과정을 간단히 생략하거나 일부 문헌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집합(concourse)적 진술문 구성, 자결적 진술문의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과하는 것으로 원자료(raw data)를 진술문(statements)로 바꾸는 과정으로 즉, 수집된 내용 중 진술문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모든 이론적 차원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보여야 한다.

인터뷰 등 모집단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하여 그 중에서 Q표본으로 선정한다. Brown(1980)은 보통 40-50여개의 문항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므로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

7) 한승주, 「입법평가에 있어 주관적 인식의 측정방법론 적용에 관한 연구」 워크숍, 2011, pp. 11-14. 일부 수정·보완함.

나는 특징을 참고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주로 기존 문헌보다 현장연구로부터 확보된 모집단과 표본일 때는 기성적(ready-made) 표본이 아닌 자연적(naturalistic) 표본에 해당하며 인터뷰를 통해 추론되는 유형에 근거하여 표본을 선택하는 경우 비구조적(unstructured) 표본이 아닌 구조적(structured) 표본에 가깝다.

## 2) P표본

P표본은 연구대상자로서 응답자를 말한다. Q방법론의 연구가 개인 간의 특성이나 차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에서 의미의 중요성 차이(intra-individual significance)를 다루기 때문에 소표본으로도 가능하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기에 표본의 수나 선정방법이 따로 없다(김홍규, 2008). 대부분의 Q방법론 연구들은 응답자의 수를 약 30명 안팎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더욱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의미적으로 Q진술문보다 적은 수의 P표본이 적합하고 P표본의 수가 커지면 발견의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분석과정에서 일반화적 해석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확대해석을 자제하고 추론에 그쳐야 하지 P표본수를 늘려서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Q방법론이 P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할당추출에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연구의 주제상 개연성 있는 인적 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3) Q분류 및 분포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P표본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카드를 읽은 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긍정, 부정, 중립의 세 무더기로 크게 나누게 한 후 각각을 다시 척도 상에서 강제 정규분포 하도록<sup>8)</sup> 한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순위정하기 절차

---

8) 강제분포는 정해진 점수대에 맞추어 분포를 메워야 하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분

와 유사하여 대상자는 자신의 주관에 기준으로 진술문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Q분류를 한 후 P표본인 연구대상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으로 양극단에 놓인 진술문들을 대상으로 왜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면담해야 한다. 특정 진술문을 왜 극단에 배치하였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이후 유형 도출 후 각 유형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내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표 3-1> 예시1: Q sort 분포의 모양

동의정도	가장동의하지않음				중간	가장동의함			
	-4	-3	-2	-1	0	1	2	3	4
카드 수	2개	3개	3개	4개	6개	4개	3개	3개	2개

<표 3-2> 예시2: Q 소팅된 분포(60개 Q표본)

Most Disagree							Most Agree					
-6	-5	-4	-3	-2	-1	0	+1	+2	+3	+4	+5	+6
25	51	6	59	9	34	10	29	38	1	18	46	26
45	55	14	24	44	23	4	36	56	12	42	52	27
33	43	13	49	57	28	30	53	2	39	16	19	35
	58	15	7	37	5	54	3	20	47	17	48	
			32	8	40	21	31	11	41			
					50	22	60					

포의 모양은 정상화(normalized)되고 모든 Q분류의 평균은 0으로 동일하며 표준편차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Q방법론 연구를 위해 고안된 PQmethod 2.11<sup>9)</sup>, QUANL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예시의 경우, 분류된 각 항목에 1에서 9까지의 점수를 주어 입력한 후 30개의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를 구한다. 다시 30개 항목을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Q요인분석을 하였다. 아이겐값이 1.0 이상이면서 각 유형간의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주요인들을 추출한다. 다만 상황적 요인을 감안하는 경우 아이겐값이 1.0 이하라도 요인추출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추출된 요인들이 중복되지 않고 직각의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배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회전시켰다. 이론적 회전도 가능하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배리맥스 회전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 제 2 절 분석결과의 해석(예시1)

Q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전개하는 보고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표들로 알 수 있듯이 1)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형의 아이겐값과 변량을 제시 2) 도출된 유형간 상관계수 3) 유형별 특성 및 인자가중치, 분류된 P표본의 특성 4) 각 유형별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진술문 제시 및 내용설명 등을 통해서 발견된 주관성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sup>10)</sup>

9) 주요인분석뿐 아니라 판단적 요인회전인 센트로이드 방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 Q분석 프로그램으로 <http://www.kssss.org> 자료실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10) 백미례, “대구 지하철 참사 경험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한국응급구조학회 제11권 3호, 2007; 한승주, 「입법평가에 있어 주관적 인식의 측정방법론 적용에 관한 연구」 워크숍, 2011, pp. 14-17.

1) 도출된 유형의 아이겐값과 변량 제시

Q방법론에서 유형을 선택할 때 아이겐값 1.0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유형 선택의 참고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주관성 인식 유형으로 충분히 설명될 만한 유형이라면 아이겐값이 1.0 미만이라도 선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3> 예시: 유형별 아이겐값과 변량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Eigenvalue	8.7852	2.0789	1.6378
변량	.3514	.0832	.0655
누적변량	.3514	.4346	.5001

2) 유형간 상관계수 제시

유형간 상관계수의 제시는 각 유형이 얼마나 다른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참고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역시 특별한 기준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형간의 상관계수는 유형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도출된 유형간의 배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예시: 유형간 상관계수 제시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1.000		
유형 2	.552	1.000	
유형 3	.456	.456	1.000

3) 유형별 특성 및 P표본 특성 제시

도출된 유형별로 어떤 대상자가 속하고 있는지를, 분류된 대상자들이 어떤 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혹은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그 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5> 예시: 유형별 특성 및 P표본 특성

유형	번호	나이	경력	당시 활동	현 직위	종교	참사 시 손상	진단유무	해소방법	인자 가중치
유형1 (N=9)	22	37	10/6	사채수습	소방교	없음	없음	없음	등산, 운동	3.7615
	21	36	9/7	구조	소방교	없음	없음	없음	운동	2.6096
	14	36	8/6	구조	소방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2134
	5	36	10/7	구급	소방장	기독교	없음	없음	대화	1.0071
	20	40	11/1	화재	소방장	없음	없음	없음	운동	.9751
	4	30	3/8	구조	소방사	없음	피부화상	없음	운동	.9123
	23	42	12/10	구조/화재	소방교	없음	가슴이 답답함	없음	운동	.8323
	19	37	11/3	구조	소방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7851
	15	36	10/6	구조	소방교	불교	없음	없음	운동, 독서	.6990
유형2 (N=9)	12	43	14/2	구조	소방장	없음	없음	없음	등산	1.3092
	7	40	14/0	화재	소방장	없음	없음	없음	등산	1.2506
	8	50	23/2	구조	소방장	없음	기관지증상	없음	등산	.9659
	24	34	8/0	구조	소방교	없음	없음	없음	술	.9476
	16	52	29/0	화재	소방경	불교	무릎통증/ 기관지증상	경계쇄성 환기장애/ 기도과민	운동, 명상	.9182
	18	30	2/8	화재	소방사	불교	피부화상	* 1 화상	운동, 여행	.8981
	2	44	13/6	구조	소방교	불교	없음	없음	운동	.7712
	13	42	15/0	구조	소방장	불교	긴장감	없음	없음	.7319
	25	40	14/1	구조	소방장	불교	없음	없음	운동, 봉사	.6805
유형3 (N=7)	3	45	21/0	화재/구조	소방장	없음	없음	없음	명상	1.3707
	9	45	14/1	화재	소방교	불교	없음	없음	술, 운동	1.3592
	6	48	16/1	화재	소방장	없음	없음	없음	시간이 해결	.6026
	11	45	20/0	구조	소방장	천주교	없음	없음	술, 운동	.5964
	1	46	17/5	구조	소방위	없음	기관지증상	없음	운동	.5776
	17	34	8/1	화재	소방교	기타	척추손상	타박상	시간이 해결	.5119
	10	43	13/0	구조	소방교	불교	흡입화상/폐손상	후두염/ 음성장애/ 피부염	정신적 안정추구	.3511

## 4) 유형별 진술문 제시

사례 논문에서는 세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는데, 제1유형에는 ‘정서적 과민형’, 제2유형은 ‘생리적 증상 경험형’, 제3유형은 ‘외상경험지속형’으로 이름짓고,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유형인 정서적 과민형으로 분류된 주관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 및 낮은 점수를 보인 진술문을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Q논문에 서 주관성 유형의 분석은 바로 이러한 분류된 진술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각 유형에서 아이겐값이 1.0 이상인 사람이 그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기에 그들을 중심으로 Q표본 분류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과 양극단에 선택한 진술문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한다.

<표 3-6> 예시: 제1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들

항목	진술문	표준점수
42.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 언론이 소방서에서 무얼 잘못한 것처럼 보도 해 화가 난다.	1.80
40.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유사시 대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	1.79
38.	한명이라고 더 살릴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1.49
41.	시간이 지나며 참사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	1.35
32.	참사직후에도 계속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 속에 스트레스가 잠재된 느낌이다.	1.26
19.	최선을 다했지만 다 구하지 못한 것에 죄의식을 느낀다.	1.25
30.	언제든 그런 참사가 다시 일어날 것 같아 불안하다.	1.14
31.	출동 시마다 대형참사가 아닌지 걱정되고 긴장된다.	1.12
20.	도의적으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1.11
39.	체력이 더 좋았다더라면 한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테더라는 아쉬움이 든다.	1.11
44.	참사 이후 음주흡연 습관이 증가했다.	-1.06
18.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1.09
36.	참사 이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악몽을 꾀다.	-1.09
8.	가끔 참사와 관련된 악몽을 꾸거나 생각이 떠올라 잠을 설친다.	-1.15
17.	참사 이 후 사랑의 감정이나 성적 흥미를 느낄 수 없다.	-1.24
2.	참사를 경험 한 이 후 어두운 화재현장 출동 시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든다.	-1.24
25.	참사 이후 이유없이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한다.	-1.30
37.	참사 이후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 성격이 변한 것 같다고 한다.	-1.35
27.	참사 이후 가끔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	-1.79
16.	내 자신이 무가치한 느낌이 들고 정상적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1.82

### 제 3 절 분석결과와 해석(예시2)

도시의 노후화, 주거지의 교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중심시가지의 쇠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도시의 공동화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도시성장관리 또는 신시가지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사례로 중소도시 중심시가지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쇠퇴의 원인을 규명해보고,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였다.<sup>11)</sup>

####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쇠퇴에 관한 요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파악하였고,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측면, 활동지원 및 인력양성 측면, 물적 시설 및 공간정비 측면에서 파악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으로는 서산시 및 대산읍의 담당공무원을 선정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23명이다. 또한 대산읍이 침체된 원인이 내부적 요인이냐 외부적 요인이냐에 따라 내부적, 독립적, 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중심시가지 침체 원인에 대한 인식

<표 3-7> 중심시가지 침체의 내부요인

문항번호	진 술 문
07-01	중심시가지 건축물 등의 물리적 노후 때문에
07-02	중심시가지와 인접한 배후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11) 최충익·진상현, “대산읍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 인식유형”, 국토계획 제42권 제5호, 2007, pp. 96-105. 참조하여 재구성함.

문항번호	진 술 문
07-03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07-04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07-05	주차장, 광장, 공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07-06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소비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07-07	중심시가지 역사 및 관광자원이 부족하거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3-8> 중심시가지 침체의 외부요인

문항번호	진 술 문
06-01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단지 개발 때문에
06-02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공공시설, 재래시장 등의 이전 때문에
06-03	도시외곽 및 인접도시의 대형할인점 출점 때문에
06-04	인접한 주변도시들의 빠른 성장 때문에
06-05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표 3-9> 제도적 지원

문항번호	진 술 문
11-01	중심시가지활성화 관련 국가차원의 법 제정
11-02	중심시가지활성화 관련 지방정부차원의 조례 제정
11-03	시군 차원의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1-04	도시외곽의 대형할인점 입지 조정 및 규제
11-05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
11-06	중심시가지 토지이용고도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표 3-10>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문항번호	진 술 문
12-01	중심시가지활성화 포럼 및 세미나 지원 사업
12-02	컨설팅트(타운메니지먼트) 육성 및 파견사업
12-03	상점가 정보화 등 정보화 지원 사업(전자상거래 등)
12-04	상인, 주민단체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12-05	상점가의 축제 활성화,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지원 사업
12-06	주변의 대학,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 지원 사업
12-07	주소비자인 도시민과의 교류 확대사업

<표 3-11> 물리적 시설

문항번호	진 술 문
13-01	개별 상점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용자 지원 사업
13-02	노후된 개별 건축물 정비를 통한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
13-03	상점가 빈 점포 활용사업
13-04	중심시가지 활력 거점 정비사업(핵시설 유지)
13-05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13-06	중심시가지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보행자가로 정비사업
13-07	중심시가지 상점가, 주택가의 내부도로 정비사업
13-08	중심시가지 내 공원, 주차장 등 정비사업
13-09	중심시가지 내 역사, 문화, 관광자원 정비사업
13-10	중심시가지 및 인근지역 주택공급 확대사업
13-11	재개발사업 등 대폭적인 면적 정비사업
13-12	중심시가지로의 버스 등 접근 교통시설 확충사업

## 2) 분석결과 및 해석

분석결과를 통해 대산읍에 대한 전문가 인식유형은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유형의 수가 8개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객관화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아이겐값 2.0을 기준으로 3개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유형

1은 “내부적 시설추구형”, 유형2는 “중립적 제도요구형”, 유형3은 “외부적 활동요구형”으로 각각 명명하였으며, 설문문항의 측정기준은 가장 동의하지 않음 -4, 중요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의견 0, 가장 동의함 4 등의 순서로 설정하였다.

#### (1) 유형간 차이

첫째, 유형1의 내부적 시설추구형은 중심시가지의 침체 원인이 주로 내부적인 편의시설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흔히 언급되듯이 도심 주변부의 대규모 재개발이나 대형할인점 때문이라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둘째, 유형2의 중립적 제도요구형은 중심시가지가 침체된 원인에 대해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에 반대하지만, 내부적 요인 때문이라는 의견에도 반대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이나 지방 정부 차원의 조례,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유형 3의 외부적 활동요구형은 중심시가지가 침체된 원인이 인접한 주변도시들의 급격한 성장과 중심시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었다.

#### (2) 유형간 합의

중심시가지 침체 원인에 대해 인식 유형1, 유형2, 유형3간에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서는 유형1, 유형2, 유형3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심시가지 침체의 내부요인으로 중심시가지 건축물 등의 물리적 노후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둘째, 중심시가지 침체의 외부요인으로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공공시설, 재래시장 등의 이전 때문이라는



지적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12> 중심시가지 침체의 내부요인

문항 번호	진 술 문	요인점수		
		유형1	유형2	유형3
07-01	중심시가지 건축물 등의 물리적 노후 때문에	-1	-2	-2
07-02	중심시가지와 인접한 배후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0	-2	0
07-03	기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1	-3	1
07-04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0	-2	-4
07-05	주차장, 광장, 공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3	-1	-1
07-06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소비자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1	0	0
07-07	중심시가지 역사 및 관광자원이 부족하거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1	0	1

<표 3-13> 중심시가지 침체의 외부요인

문항 번호	진 술 문	요인점수		
		유형1	유형2	유형3
06-01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단지 개발 때문에	-3	-4	-2
06-02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공공시설, 재래시장 등의 이전 때문에	-2	-3	-3
06-03	도시외곽 및 인접도시의 대형할인점 출점 때문에	-1	-2	0.
06-04	인접한 주변도시들의 빠른 성장 때문에	-1	-3	3
06-05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	0	4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인식 유형1, 유형2, 유형3간에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서는 유형1, 유형2, 유형3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제도적 지원으로 시군 차원의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둘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으로 상점가의 축제 활성화,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지원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셋째, 물리적 시설로 중심시가지 상점가, 주택가 내부도로 정비사업, 중심시가지 내 공원, 주차장 등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등 대폭적인 면적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표 3-14> 제도적 지원

문항 번호	진 술 문	요인점수		
		유형1	유형2	유형3
11-01	중심시가지활성화 관련 국가차원의 법 제정	0	2	-1
11-02	중심시가지활성화 관련 지방정부차원 조례제정	0	3	-3
11-03	<b>시군 차원의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b>	<b>2</b>	<b>3</b>	<b>2</b>
11-04	도시외곽의 대형할인점 입지 조정 및 규제	-3	1	-2
11-05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	-4	0	-3
11-06	중심시가지 토지이용고도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2	2	0

<표 3-15>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문항 번호	진 술 문	요인점수		
		유형1	유형2	유형3
12-01	중심시가지활성화 포럼 및 세미나 지원 사업	-3	0	1
12-02	컨설턴트(타운메니지먼트) 육성 및 파견사업	-2	0	-1

제 3 장 입법평가에의 적용가능성

문항 번호	진 술 문	요인점수		
		유형1	유형2	유형3
12-03	상점가 정보화 등 정보화 지원 사업(전자상거래 등)	0	0	0
12-04	상인, 주민단체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1	-1	2
12-05	<b>상점가의 축제 활성화,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지원 사업</b>	<b>3</b>	<b>2</b>	<b>2</b>
12-06	주변의 대학,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 지원 사업	-1	0	3
12-07	주소비자인 도시민과의 교류 확대사업	1	-1	1

<표 3-16> 물리적 시설

문항 번호	진 술 문	요인점수		
		유형1	유형2	유형3
13-01	개별 상점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용자 지원 사업	0	-1	-2
13-02	노후된 개별 건축물 정비를 통한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	1	1	0
13-03	상점가 빈 점포 활용사업	0	-1	-1
13-04	중심시가지 활력 거점 정비사업(핵시설 유치)	1	1	0
13-05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2	1	-1
13-06	중심시가지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보행자가로 정비사업	2	-1	0
13-07	<b>중심시가지 상점가, 주택가 내부도로 정비사업</b>	<b>4</b>	<b>1</b>	<b>2</b>
13-08	<b>중심시가지 내 공원, 주차장 등 정비사업</b>	<b>3</b>	<b>4</b>	<b>1</b>
13-09	중심시가지 내 역사, 문화, 관광자원 정비사업	0	2	-1
13-10	중심시가지 및 인근지역 주택공급 확대사업	0	1	0
13-11	<b>재개발사업 등 대폭적인 면적 정비사업</b>	<b>1</b>	<b>3</b>	<b>1</b>
13-12	중심시가지로 버스 등 접근교통시설 확충사업	2	0	3

## 제 4 장 결 론

### 제 1 절 요약

Q방법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사례의 예시를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유형들간 차이점과 공통점이 발견되면 특정 주제 내지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소통체계를 확보하고 공동체로서의 자기성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형들간 공통적으로 표출된 합의 형성은 향후 연구를 통해 일반화로의 진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특정 주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진술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형간 차이가 명료하지 않고, 또한 동일한 유형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구조화 Q표본에 기인하기도 한다. 즉, 비구조화 Q표본은 특별한 연구설계가 없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 내지 문제 및 개념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다양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진술문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Q방법론 연구의 대부분이 비구조화 Q표본을 이용하고 있다.

셋째,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또한 상이한 역할과 지위에 있다면 개인들의 주관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가장 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추출방법과 규모와 관련이 있다. 즉, 무작위추출에 의하지 않고 적은 수의 연구대상자를 토대로 산출된 Q방법론을 적용

한 연구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이다. Q방법론을 “가설발견의 논리”라고 명명하는 것도 Q방법론의 이러한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Q방법론의 적용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무작위추출에 의한 다수의 표본에 적용하여야 한다(Kerlinger, 1973).

## 제 2 절 입법평가의 Q방법론 활용

### 1. Q방법론의 연구결과 일반화

Q방법론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요인들(factors)은 유사한 생각, 인식을 가진 부류의 일반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연구대상자가 소수라도 해당집단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점에서 Q방법론의 활용가치는 크다고 하겠다. 반면에 연구대상자가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에서 Q방법론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rown & Ungs (1970)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충족요건으로 하나는 연구대상자의 대표성 즉, 표본의 대표성이며 다른 하나는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 규모에서 연구대상을 인위적으로 배분하고 선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R방법론은 가능한 많은 수의 표본(sample)을 무작위(random)로 추출하여 모집단(population)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Q방법론의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Q표본 및 진술문 구성, P표본선정, Q부류, 자료처리 및 분석결과 해석 등 연구결과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표본 즉, P표본의 수를 확대하고 또한 강제배분을 통한 연구대상의 선정방식에서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반영 내지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Q방법론의 적용범위 확대

Q방법론 연구는 진술문의 분류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강제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R방법론은 설문문항간 독립성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표본의 평균(mean)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와 분산을 통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Q방법론은 설문문항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서 정규분포를 이루기 위해서 극단값을 갖는 설문문항을 너무 적게 배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결국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연구대상 분류가 통계학적 가정을 위반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해서 Brown(1999)는 극단값을 갖는 적은 수의 진술문 분류는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이지 이것이 통계학적 가정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Q방법론은 하나의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통해 요인들간에서 다른 유형을 추출하게 된다. 요인추출방식에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리맥스(Varimax), 쿼타맥스(Quartmax), 이퀴맥스(Equimax) 등이 있으며, 주관적인 방법으로 센트로이드(Centroid) 방식이 있다.

이에 대해서 McKeown & Thoma(1988)는 주관적이고 판단적인 센트로이드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정의 적은 수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아이겐값(Eigen value)이 1.0 미만이라도 의미있는 요인으로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념정립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법제분야의 경우 아이겐값 1.0 미만에서도 요인을 추출하여 유형화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객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의 결과로 밝혀진 유형들을 새롭게 R방법론을 적용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두 방법론의 결과를 비교한다든가 또는 직업, 학력, 경제력, 건강수준 등의 항목을 다양화시키

#### 제 4 장 결 론

고 또 다른 통계기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표준화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으로 연계함으로써 Q방법론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Q방법론 연구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가 적음으로서 생기는 연구대상자의 배경적 변수와 요인들간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주관성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관성은 일정한 구조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Q방법론 연구는 중요하다. 특히 개념정립 및 체계정합성 등 법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가 전제되는 법제분야에서 수범자들의 주관적인 인식 유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Q방법론의 효용은 크다고 하겠다. 즉, 수범자 집단별로 나타나는 가치, 감정, 선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론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발견된 수범자 집단별 인식 유형이 입법목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입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참고문헌

### <국내서적>

- 김경은(2011), “청장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과 유형: Q방법론적 접근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7호.
- 김도환·황상민·최윤식(2001), “정치현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과 심리적 기제”, 제25권 제2호.
- 김성준(1998), “전자정부의 개념정립과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 Q방법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김순은(1999), “Q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9권 제2호.
- 김영기·한 선(2007), “문화도시 만들기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7권 제3호.
- 김옥일(2000), “내부고발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유형분석 연구: Q방법론의 적용”, 영남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김진강·이춘수(2011), “캐나다 대학생의 한국음식 소비유형분류 - Q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2호.
- 김창남·김희진(2011),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 태도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 제1호.
- 김평수(2001), “경찰 및 경호 관련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Q방법론적 선호도 분석”, 『경호경비연구』 제28권.
- 김홍규(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간호학논문집, 제6권 1호.



참고 문헌

- \_\_\_\_\_, Q방법론(주관성연구)의 이해와 활용, 공주대학교 건강 산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 \_\_\_\_\_,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창우 · 이용재(2011),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입양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 백미례(2007), “대구 지하철 참사 경험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한국응급구조학회 제11권 제3호.
- 백용덕(1999), Q방법론의 이론과 실제, 인하대학교 출판부.
- 백평구 · 이희수(2001), “인적자원개발에서의 주관성 연구의 의미: Q방법론을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개발』 제41권 제3호.
- 손원경 · 박진희(2011), “평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유형분석 - Q방법론적 접근”, 『아동교육』 제20권 제1호.
- 이순자 · 박형서(2011), “Q방법론을 활용한 갈등행위자 인식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 이희은(2011).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의 가추법이 갖는 유용성”,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4권.
- 임정기 · 최명민 · 김옥(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기능과 운영에 대한 인식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8권 3호.
- 장혜주 · 임지영(201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분노표현방식 유형에 관한 연구: Q방법론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4호.
- 정규호(2000), “환경보존 담론의 유형에 대한 Q방법론적 연구”, 『환경정책』 제8권 제1호.

- 조계화(2011), “간호대생의 행복에 관한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권 제2호.
- 조계화 · 김균무(2011), “한국성인이 인식하는 품위있는 죽음의 이해 - Q방법론적 접근”, 『한국의료학회지』 제14권 제1호.
- 최미경 · 서지민(2001),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태도: Q-방법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충익 · 진상현(2007), “대산읍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 인식유형”, 『국토계획』 제42권 제5호.
- 최 협(1991), 계량적 접근과 질적 방법 -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 서울: 청람문화사.
- 한승주(2011), 『입법평가에 있어 주관적 인식의 측정방법론 적용에 관한 연구』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 함현진 · 서용구(2011), “Q방법론을 적용한 문화예술상품 소비자유형에 관한 연구”, 『상품학 연구』 제29권 제2호.

### <국외서적>

- Brown, S. & T. Ungs. (1970), Representativeness and the study of Political Behavior, Social Science Quarterly, 51.
- Brown, S.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 of Methodolog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rown, S. D. During and S. Selden. (1999). Q Methodology, In G. Miller and M. Whicker,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Marcel Dekker.

참 고 문 헌

- Dennis, K. E. (1986), Methodology: Relevance and application to nursing research, *Advanced in Nursing Science*, 8(3).
- Dryzek, J. S. & J. Berejikian. (1993), Reconstuctive Democratic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1).
- Durning, D. (1999),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to Postpositivist Policy Analysis: A Role of Q Methodology, *Journal of Policy in Fragmented Societies*, Canada: UBC Press.
- Kerlinger, F. (1973), *Foundation of Behavior Research*,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McKeiwn, B. & D. Thomas. (1988), *Q Metholog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Stephenson, W. (1967). *The Play Theroy of Mass Communi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phenson, W. (1980), *Communication Reviews and Commentaries*, *Communication*, Yearbook 4.